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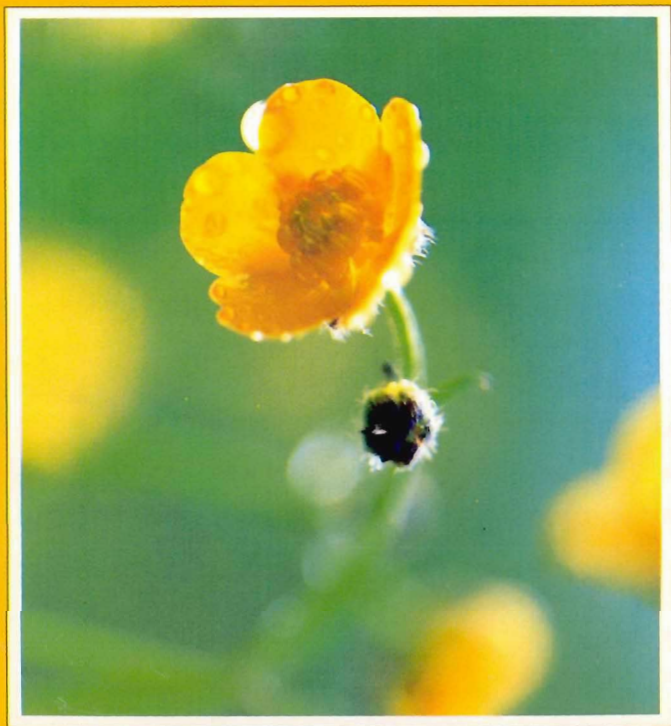
가정예배 안내서

5

1994

충현의 만나

베드로전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기도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생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2. 김창인 원로목사님과 신성종 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3.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생령 충만을 위하여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5.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6.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7.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4년 5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베드로전후서 서론

베드로전서(총 5장 105절)와 베드로후서(총 3장 61절)는 서간문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베드로전후서의 저자는 자신을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다(벧전 1:1, 벧후 1:1). 이 편지는 로마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루기아와 밤빌리아와 길리기아를 제외한 소아시아 전역에 산재해 있던 교회(벧전 1:1)에 보내진 것이다.

먼저 베드로전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소아시아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4장 3절 등의 언급들은 베드로전서가 이처럼 박해받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보내진 편지임을 분명히 밝혀준다. 본 서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본 서의 주제는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베드로후서의 기록 목적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재림설을 비웃으며 조롱을 일삼는 자들이 나타나서 신자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예언자들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상기시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본 서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본 서는 이단자에게 미혹되지 말 것을 권면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다(벧후 2:1-22). 베드로후서의 주제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고'이다.

1

(주일) 기도의 생활

찬송 / 483장 본문 / 시 4:1-8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4:5)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구의 근거는 과거에 자신을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시니 현재에도 그리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 체험에 근거하여 신념있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확실히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3절).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경건한 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경건한 자'란 말은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는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자 앞에서 떨며 범죄치 말라고 합니다. 원문에서 '떨며'란 말은 '분내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주장을 세우면서 분내어 범죄치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할일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5절). 우리의 상한 심령 곧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확신 속에 부르짖었던 것과 같은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입을 넓게 여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주여, 우리의 기도를 넓게 열어주소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깊이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1:7)

본문에서는 성도가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장차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3-5절). 둘째는 현재에 받는 고난을 통하여 마침내 성도들은 영광을 얻게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6-9절). 여기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날을 바라보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시 119:67)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주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축복, 즉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벧전 5:4). 그러므로 고난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 유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하여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며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을 이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기도 /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며 더 큰 믿음을 받게 하소서. 김창인 원로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사역에 주의 권능을 주소서.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1:19)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도의 삶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죄인들을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13-16절). 둘째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7절). 그리고 다시는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18-21절).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매사에 긴장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곧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지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져야 합니까?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조상들이 구속함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19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벧전 2:9).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를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주의 명령을 따라 형제 사랑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 기도 /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당회장 신성종 목사님께 새로운 힘과 권능 있는 말씀의 영을 부으소서.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2:6)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으뜸가는 모퉁이 돌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돌은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 돌이 되었습니다. 왜 산 돌이라고 하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돌입니다.

여기서 산 돌이란 실제로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면서 똑같은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에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에 순복하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고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이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였을 것이며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도 산 돌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산 돌이 되며 생명의 근원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 할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는 산 돌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지며 그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집니다(골 1:18). 오늘 우리의 생활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넘어진 때는 없었습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았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산 돌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됩시다.

▶ 기도 / 산 돌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충현의 성도들이 언제나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2:12)

본문은 기독교인의 행실이 어떠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악한 일을 당해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한 것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믿는 자의 선한 행실은 악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때문이요, 다음은 어리석은 자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화가 심합니다. 변하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가치관이나 윤리관도 때를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이 손해를 입는 결정을 따르려 하지는 않습니다. 당한대로 갚으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사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으며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는 당한대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더 좋고 더 선한 것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선행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성도는 이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선행을 잘하는 자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당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반드시 선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착한 행실로 악한 자를 구원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 기도 / 주여,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의 성결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착한 행실로 인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신앙 안에서 양육받게 하옵소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1:3)

본문은 디모데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그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감사한 일이거나와 조상적부터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디모데는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대를 물리는 신앙을 하였습니다.

대를 물리는 디모데의 신앙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치되었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전달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부모의 신실한 신앙 생활은 그 자손들이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의 신앙은 은사가 불일듯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이란 걱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마음이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행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정하신 은혜를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 중에 큰 복은 믿음을 물려받고 물려주는 것입니다. 물려받은 자는 감사하고 또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처음으로 시작된 가정이라면 후대에 믿음을 물려주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성령께서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며 이 신앙을 후대에 영원히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3:7)

모든 인간 조직의 가장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의 기본은 부부입니다. 본문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온전한 관계는 가정의 건전함을 이루고, 국가의 건전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건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아내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내의 자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곧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안정된 심령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주'라 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는 가운데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서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생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이 생활이 바로 될 때에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 순종과 존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가정은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곳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일을 통해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부부의 위치를 서로 잘 지키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아내의 위치에서 남편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하옵시며 주님이 함께 하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직원들이 성령충만하여 주 안에서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5:3)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의해서 시편 제 5편을 ‘아침의 시’, 또는 ‘아침 기도’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윗의 개인적인 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침기도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기도한다는 이 말 뜻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 그대로 아침에,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아침 시간, 특히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는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시작한 생활이 밤에 잠자리에 들어 잠이 들 때까지 내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셨지만 우리 역시 아침 일찍,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 아뢰고 하루 일을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밤까지 내내 기도하는 정신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큰 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도 큰 복인데, 항상 기도하므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보다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도 줄이고 죄와 세상에 속한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그 야말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도하되, 아침 일찍부터 기도하는 삶을 계속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기도하는 생활, 기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 기도 /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우소서. 우리를 낫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영육간의 부모님께 주 안에서 효도하게 하옵소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3:15)

오늘의 말씀은, 특히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에 관한 중요한 등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직면할 때 우리는 두려워한 나머지 이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쉽게 타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임을 기억하고 거룩해야 하며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위기에 직면하면 사람과 타협하기 쉽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 그 곤경에서 빠져 나가기 위해서 죄를 짓기보다는 오히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 자들의 삶은 고난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증거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믿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을 주장하시어 그들의 찬양이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4:1)

베드로전서 4장에서 우리는 고난의 참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어떤 태도로 맞이해야 하는가? 또 어떤 태도로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이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을 맞이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특히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종말의 시간을 위해 더욱 분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악한 것들에 의하여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난의 때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를 괴롭게 하기는 하지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존 웨슬리는 “지금까지 살아 왔듯이, 하던 일을 그대로 할 것입니다”라고 매우 뜻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매일 매일을, 그 날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이제 죽음을 통고받았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답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4:19)

본문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극복하는 성도의 자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주후 64년 로마시에서 시작된 네로의 기독교대박해가 점차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박해의 정도 역시 점점 더 심해져갔습니다. 화형, 집단학살, 가문추방 등…… 당시에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4:14) 부당하게 핍박받는 그들에게 과연 무엇으로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12, 13절).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믿음이 연단된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성도의 고난은 전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전조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17절). 베드로는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단순한 핍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멸망이 눈 앞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18절).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필연코 고난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성도는 고난을 피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단이고 장차는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기도 /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소서. 구역원들에게 전도의 열정을 더하셔서 교회가 배가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5:10)

본문은 베드로전서를 결론 지으면서 주님의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참고 견딜 때 승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10,11절). 그러나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그 앞에 있지만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8절). 특히 성도와 성도간을 불화하게 함으로 외적으로는 핍박이요, 내적으로는 불화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고난에 직면한 교회를 향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는 첫째, 하나님이 맡겨 주신 양무리를 돌볼 때 마지못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해야 하며, 둘째, 양무리를 돌볼 때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며 오직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셋째, 성도들에게는 권위를 가지고 군림하는 자세로 해서는 안되며 오직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서로에 대하여 겸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5, 6절). 이는 젊은이들이 혈기가 왕성하여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킴으로 교회의 질서를 문란케 하기 쉬운 관계로 교회의 질서 유지와 평안을 위하여 특별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고난의 파도를 헤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간의 화목과 영적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 서로 화목할 때, 또 서로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종할 때 교회는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 기도 / 험한 세상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과 화목하여 고난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남녀전도회가 회여져 추수 때를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 복음의 빛을 들고 달려가게 하소서.

『.....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16:19)

신약교회가 태동하던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초대 교회를 살펴보면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중심한 교회형성기(30-36년), 사마리아와 전(全)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던 교회의 과도기(37-46년), 그리고 안디옥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던 교회 확장기(47-66년)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확장기에는 이방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활동과 바울을 돕는 평신도가정인 브리스길라의 가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가정에 대해 바울은 매우 깊은 감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롬 16:3,4).

이 시간 다섯 가지로 이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경에 이들 부부가 한 번도 따로따로 언급된 적이 없는 가정 중심의 신앙, 둘째로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동역자에 대해 신의 있고 실천하는 사랑의 믿음(롬 16:3, 4), 셋째로 고린도에서 바울을 유하게 하고 그와 동업을 하며 복음전파 사업을 위해 힘써 도왔던 충직한 믿음(행 18:3), 넷째로 자신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기꺼이 제공할 만큼 헌신적인 신앙(고전 16:19), 다섯째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이볼로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는 사려깊고 세심한 신앙(행 18:24-26)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사자인 주의 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참으로 섬길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 주님,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종들이 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 나라의 모든 면에서 회개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옷입게 하옵소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1:4)

베드로후서는 로마황제인 네로의 집권 말기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네로의 핍박보다도 더 끈질기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이었던 이단사설의 교회침투에 대한 성도의 보호 차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평생 해나갈 때에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또 알아야 할 것은 믿음이라는 신앙의 덕목입니다. 이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보배인 믿음을 소유할 때에만 이 세상의 썩어질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승리와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믿음은 나날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덕을,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등을 공급해 주면서 부단히 성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계속 성장하면서 열매를 거두는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풍성한 삶을 살고 종내는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을 바라 보시면서 힘있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 기도 /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보다 더 큰 보배로운 믿음을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여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6:9)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인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서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대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훈련과 특별한 연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다면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더 많은 불행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뜻 가운데 하나는 문제가 바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요구하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은 응답 또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의식이야말로 말로 기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능력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되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기도의 축복이 때를 따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 기도 / 하나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을 바라보면서 확신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교사들에게 더욱 충성할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1:21)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단사설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피해와 손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이단의 유혹앞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모호한 태도야 말로 마귀가 노리는 가장 적합한 공격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통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성경저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받는 성령의 감동과는 질적으로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다만 이 감동하심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 단회적인, 즉 한번 밖에는 우리 역사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이외에 어떤 사람도 성경을 쓸 수 없고 써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성경을 접하는 사람만이 축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 기도 / 올해는 꼭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현지인 선교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2:1)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듯이 신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재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재물을 주는 자에게 평안을 예언하고 주지 않는 자에게 저주를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적과 기사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기의 추종 세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들은 이단과 더불어 손을 잡고 교회내에 이권에 관계되는 일을 차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의 특색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심판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저들의 생활은 방탕하여 육체적인 음란과 호색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탐욕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베드로는 저희들을 향한 심판은 곧 이루어질 것이며 멸망케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화로 노아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들면서 저들의 결말이 이와 같을 것임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지자들은 이권에 개입하여 성도들을 온갖 감언이설로 속여서 재물을 축적하며 말씀보다는 신비한 능력이나 꿈, 예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영적인 눈을 떴서 거짓 예언이나 감언이설에 속지 않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하며 성경공부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우리 가정에 거짓 교리가 들어오지 않게 하소서. 육호기 선교사(독일)의 사역을 통해 현지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2:14)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한 베드로는 이제 본문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도덕적으로 방종하여 세상 연락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쉬임없이 행하되 음심이 가득하고 불의의 삶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려는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다시 육체의 방탕과 타락에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단의 모습을 열거하면서 이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져 추종자가 되면 비참한 최후 상태를 맞이하게 되겠는데 이를 개와 돼지에 비유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교묘하게 거짓 교훈에 빠져들게 함으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시궁창에 도로 눕게 되는 것과 같이 죄악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추종자들은 죄악의 길에서 헤매이게 되는 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죄악된 요소를 갖고 있는 나약한 모습이 있기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거짓 선지자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게 하소서.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이 열매맺게 하옵소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3:4)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 재림과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앞으로 종말이 있음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거룩한 행실과 경건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조심해서 살아야 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생각이나 경험에 비춰서 억지로 풀어보려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므로 믿음으로 받아드리는 것도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자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야 함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재림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살면서 주의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의 생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잘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 기도 / 최선을 다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의 사역으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현지인들이 믿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게 하소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5:33)

본문은 사랑의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주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도는 하늘의 영적 의미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기쁘게, 온전히, 존경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듯이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교회가 거룩하여 흠없도록 보전하시려고 책임을 지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태도는 가정 전체 질서에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가정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실 때에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사신 교회이기에 곧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33절).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부부사이에 질서가 없어지는 것은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원리는 사랑의 가정을 보증해주는 진리입니다. 부부는 주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며, 교회는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연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합시다.

▶ 기도 / 하나님, 우리 가정은 주님과 교회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질서를 잘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안식령 선교사의 언어훈련과 새로운 사역을 위한 확실한 비전을 형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1:3)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절).

바울은 골로새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특히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가진 후에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들이기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고, 잘 성장하므로 능력있게 참고 기다리며 결국 예수님의 기업을 받아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도 더 감사하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어떤 점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믿음도 좋고, 사랑도 많으며, 전도의 열매를 소망삼고 더욱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찬 자녀가 되어 항상 감사거리가 넘치게 하여주시옵소서. 김은태 선교사의 언어의 탁월한 진보가 있게 하시며 그의 사역을 통해 복방선교의 장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7:10)

본문은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심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정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먼저 정직한 사람은 환난날에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1절). 왜냐하면 진정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직한 사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생활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십니다(9절). 셋째,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선악을 분명히 구별하시며 심판하실 때에도 실수하지 않으십니다(11절).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하시되, 계속하여 죄중에 거하면 심판의 칼을 드시는 분입니다(11, 12절). 정직이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으며 항상 긍휼을 구하는 가장 겸손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정직합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항상 정직한 자의 편이십니다.

▶ 기도 / 하나님, 모든 일에 정직하여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김창수 목사님(수리남)의 사역 위에 항상 동행하시고 새로 등록하는 가정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1:19-20)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 만물의 창조자와 만물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너무나 고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사람이나 착한 사람, 위대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여주는 일도 쉽지 않은데 아무작에도 쓸모가 없고 경건이라곤 찾아 볼 수 없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감격해 하였습니다(롬 5:5-8). 그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알았습니다.

희생하신 분이 크신 만큼 그 열매도 큼니다. 그 분의 희생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풍성을 하늘에서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상 가는 대안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으로 평생을 바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이 선물에 얼마나 감격하고, 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 기도 / 항상 구원의 사실을 깨닫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게 하소서. 유병세 선교사(일본)의 새로운 사역자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2:6,7)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심정으로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성도들을 위해 애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애를 쓰는 이유는 이 지방에 듣기 솔깃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이 성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지방의 성도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아무리 이단이 성행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바른 것인 줄 알고 용기를 얻으며,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모습을 이루도록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단이 성행하는 곳에서는 이단 논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요, 성도들간에도 불신과 반목이 많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성행하던 이단 가운데 바울이 지적하는 첫번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사상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 뛰어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신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신성이 충만하여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는 말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면서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정말 우리의 귀감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맙시다.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 기도 /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기성·박정아 평신도선교사(호주)가 바쁜 생활 중에도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감사하게 하소서.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2:17)

어제에 이어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잘못된 사상 가운데 두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그리고 이에 포함되어 있는 금욕주의 사상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의식 율법을 그대로 좇아서 음식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하고 매주마다 안식일, 매월마다 첫날, 매년마다 절기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부 선생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의식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으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와 같은 율법의 의식뿐 아니라 어떤 세력도 다 무력화시키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초를 금하고 세상의 오락을 금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라 완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고귀한 구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세속 문화와 세속 쾌락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사 52:11, 계 18:4).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세속의 쾌락을 금하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을 지켜나갑시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유대인들처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은 우리의 정결한 삶을 유지합시다.

▶ 기도 / 세속에 물들지 않은 정결한 삶을 살게 하소서. 김형선 · 한영자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의 삶을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3:1)

이 세상에는 위엿 것을 찾는 사람과 땅엿 것을 찾는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위엿 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사람은 위엿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만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요셉은 불신앙의 땅에 살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에 음란한 여인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으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이까”(창 39:9)라고 하면서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그는 위엿 것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구주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마 26:15)라고 하면서 돈을 따라가다 망했습니다. 그는 땅엿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위엿 것을 찾는 삶이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것을 포기하는 삶을 말합니다. 음란이 가득한 세상에서 음란을 요셉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생활입니다. 악과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 못된 악과 욕심과 탐심을 딱 끊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땅바닥을 내려다보지 않고 위를 쳐다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기도 / 주님, 땅엿 것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김철영 평신도 선교사(일본)를 통해서 일본 복음사역에 구체적 열매를 주옵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옵소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6:1)

본문은 자녀들은 부모들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께 주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할 부모님을 모신 사람은 행복합니다.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기는 커녕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지내다가 마침내 철이 들고 사물을 분별할 때가 되어 부모님을 바라볼 시점에는 안타깝게도 이미 돌아가셨거나 너무 늙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경우에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 불순종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다음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평생동안 공경할 책임이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는 부모들을 버리는 일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큰 죄악입니다. 부모님의 육체적 정신적 상황에 따라 공경의 태도가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부모님의 상황이 어떻든지 자녀들은 마땅히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잘 드리고, 마음과 물질로 감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전의 자녀들은 순종하기 어려운 것도 순종하시고, 결혼한 자녀들은 끝까지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님을 잘 돌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고은빈 선교사(케냐)의 현지어가 능숙하게 하시며 팀선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열매맺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3:23)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대인관계를 가져야 할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입니다.

먼저 성도들은 독한 마음이 아니라 여린 마음과 눈물있는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대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대접받으려 하고, 대접 못받아 섭섭해 하고 불평하는 사회는 몹쓸 사회입니다. 성도들은 금방 성을 내거나 안절부절 하지 아니하고, 꼭 참으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를 미워하고 약점을 들추고 의심을 잔뜩 부풀리는 그런 사탄적인 삶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싸매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성령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느 때나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고 전달하는 평화의 사신이지,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의 불씨가 되고 파당의 핵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찬 세상에서 구원의 감사, 삶의 감사로 감사를 드높이는 감사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려면 먼저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에 충만하고 찬송에 충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본단위요 터전인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만큼 꼭 그대로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입니다.

▶ 기도 / 주님, 사탄이 주의 말씀과는 정반대인 세상을 만들고 있사오니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능을 주옵소서. 김영대 목사(파송 준비)의 중등 회교권 선교의 준비가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8:1)

다윗은 본문 시편 8편인 찬양시를 통해 대자연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깨닫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는 자신을 드러내 주시지 않고 반대로 어린아이나 젖먹이와 같이 스스로 겸비한 자에게 계시해 주십니다(마 11:25).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3-9절에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인간의 존귀를 노래합니다. 본 대목은 모든 피조물 중 인간을 가장 탁월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실로 보잘 것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교제의 상대자로 삼으셨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을 인간의 통치권 아래에 두셨습니다(6-8절).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만물 위에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 기도 / 나의 삶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돌리게 하소서. 위정자들이 공의를 위한 결정을 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소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4:2)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항상 힘써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하며 그분으로부터 능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눅 22:44).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전심을 다하여 기도해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분명하게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바가 뚜렷하고 확실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신 분이랴 하시지만 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무턱대고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분명히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도가 없고 아무런 것도 가능케 할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고(삼상 1:10-20),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사자굴과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서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단 3:13-27).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받으시고 차고 넘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분명하게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는 축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 분명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게 하소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4:11)

오늘날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는 개탄의 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에바브라는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모범적인 신앙인이 되려면, 사랑으로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는 참으로 눈물겹고 감동적인 미담의 주인공들이 자랑스러운 표창을 받습니다. 표창자들이 어려운 환경과 위치에서도 그토록 헌신적인 봉사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결같은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라도 몸소 섬기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방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의 수고를 하였습니다(13절). 사도 바울은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살전 1:3). 실로 사랑과 봉사는 기독교 특유의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봉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람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곧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해야 하는 수고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시므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랑으로 헌신 봉사해야 합니다.

성도는 바울을 돕는 신앙의 동역자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신앙의 본을 보여 이웃에 본이 되고 사회와 국가에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 나의 삶 속에서 사랑과 봉사가 흘러 넘쳐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달에도 함께 하신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6월에도 동행하사 더욱 믿음이 성숙하게 하옵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 3) 구역공과..... 인도자
- 4) 가 도 인도자
- 5)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18 과

조상적부터 섬기는 하나님

· 성경본문 : 딤후 1:3-14

· 중심요절 :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딤후 1:9)

· 찬 송 : 333장, 410장

1. 서 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하여는 모든 가족이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가정에서도 때를 정하여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들도 부모들의 신앙을 배우게 되고 커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올바르게 믿음으로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통하여 신앙을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서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 유니케는 유대인으로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신앙이 좋았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 태생으로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시에 개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선교 여행을 함께 다녔습니다. 디모데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도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교사들

을 가르치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감독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혈통으로 보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을 중요시하여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간주하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의 어머니쪽 신앙이 좋았던 것이 디모데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을 알게 됩니다.

3. 본문 관찰

1) 디모데가 조상들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을 섬기는 전통이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그에게 생겼습니까 (5절)?

4)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을 말합니다? (12절, 8절)

5) 바울이 이 고난을 부끄러워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2절)

6)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습니까 (7절)?

4. 삶의 적용

1) 우리들은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토의하여 봅시다.

2) 사도 바울은 무엇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는지 말하여 봅시다.

3) 우리들은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하여 봅시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여 줍시다.

5. 결 론

신앙의 유산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귀중한 재산입니다. 이 세상의 유산은 없어지기도 하고 잘못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신앙의 유산은 빼앗아 갈 자가 없으며 자녀들로 하여금 인생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승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귀한 신앙을 자신들만이 갖고 끝나는 부모가 아니라 로이스와 유니게처럼 자녀들에게 값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19 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

· 성경본문 : 롬 16:3-4

· 중심요절 :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롬 16:4)

· 찬 송 : 495장, 507장

1. 서 론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만들어 주신 귀한 보금자리입니다. 이 세상의 험난한 항해를 하는 가운데 인간의 영혼이 쉴 곳도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축복의 땅에 함께 들어갈 동반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에는 그 가족도 함께 부르십니다. 노아의 가족도 노아로 인하여 모두 구원 받게 하시고, 모세의 가족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움직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족들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행 10:1-2). 이런 가정들은 믿음의 모본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교훈을 삼아야 하겠습니다.

2. 본문배경 연구

아굴라(남편)와 브리스길라(아내: 브리스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함)는 유대인 부부로서 가족으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서기 49년 클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추방할 때 쫓겨 났습니다(행 18:2).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

을 때 이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과 함께 머무르며 장막 만드는 같은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 이 부부는 바울을 도와 목숨의 위험도 무릅쓰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하였습니다. 아마도 이 때 이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서 일하여야 하는 필요성과 기회를 깨닫게 하였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들 부부는 로마 황제가 내린 추방 명령이 끝나자 로마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 편지를 쓰면서 이들 부부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2) 사도행전 18:26에서 이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가 말하여 보십시오.

3) 이들 가정은 주님의 종을 돕는 역할을 잘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들은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많은 훼방을 만났을 때에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을 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떠한 고난을 만났는지를 사도행전 18:12-17까지 찾아 보고 말하여 보십시오.

4) 이들 가정에 대하여는 이방인의 교회들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롬 16:4).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에게 감사하였는지 말해 보십시오. 참고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고난을 만난 후 에베소로 갑니다. 이들 부부도 사도 바울을 동행하여 에베소에 가서 머물게 됩니다(행 18:18-19). 이들은 이곳에서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고전 16:19).

5) 성경에 보면 남편의 이름이 아내의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브리스길라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이 먼저 나오는 성경 귀절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4. 삶의 적용

1)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가정을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가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가정의 어떠한 점 때문인지 말하여 봅시다.

2) 아브라함은 그의 장막을 옮길 때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도 새로이 쌓았습니다(창 13:18). 이것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한 어떠한 일과 같은 일입니까?

3) 여호수아 24:15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이야기해봅시다.

4) 우리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가정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토의하고 의논된 내용을 놓고 기도합시다.

5. 결 론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처럼 모범적인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들 가정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협력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전파를 하였던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가정들도 이러한 좋은 것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모범된 가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 20 과

사랑의 가정

· 성경본문 : 엡 5: 22-33

· 중심요절 :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엡 5:33)

· 찬 송 : 267장, 268장

1. 서 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가정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통적 질서들이 무너져 가면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가정 질서가 바로 잡히지 못할 때에 그 가정은 불안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의 가정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가정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남편과 아내의 가정 질서는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2. 본문배경 연구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 하나로서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우들을 위하여 보내는 편지입니다. 수신인은 에베소 교회이지만 그 내용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독교의 중요 교리와 생활의 진리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로서 사도 바울이 3년간 사역하였던 곳입니다. 바울 외에도 디모데,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등이 이 교회에서 일하였습니다.

3. 본문 관찰 및 토의

1) 유교나 회교에 비교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 구성의 기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2) 창세기 2:24을 통하여 볼 때 부부는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3) 남편이 따라야 할 본은 무엇입니까(25절)?

4) 아내가 따라야 할 본은 무엇입니까(22절)?

5) 남편이 하여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25절, 33절, 골 3:19, 벤티전 3:7)?

6) 아내가 하여야 할 의무는 무엇입니까(22절, 33절, 디도서 2:4, 5)?

4. 삶의 적용

1)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에 비하여 볼 때, 남편된 나 자신이 아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말하여 봅시다.

2)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것에 비하여 볼 때, 아내된 나 자신이 남편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말하여 봅시다.

3) 우리들의 가정 생활에서 부부간의 질서는 어떤지 생각하여 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부부 사이에서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가집시다.

5. 결 론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신성한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한 몸을 이룬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간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아 사랑으로 결합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나라 건설에 이바지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 21 과

자녀 교육 성경

· 성경본문 : 엡 6:1-4

· 중심요절 :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

· 찬 송 : 492장, 299장

1. 서 론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전에 비하여 부모와 자식과의 윤리적 관계가 약화된 점이 많습니다. 전에는 우리 사회가 유교적 전통에 따라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철저히 강조하여 효를 인생의 기본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유교적 효의 강조가 자칫 형식화, 의례화 되는 경향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현대 사회는 지나친 개인주의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부모 자식 관계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하겠습니까?

2. 본문배경 연구

본문 에베소서 6장은 가정을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은 자녀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이 당시 로마시대에 자녀에 대한 법과 풍속을 살펴봅니다. 당시의 부권은 절대적인 권리로서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고 종으로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러한 법과 풍속 가운데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마구 취급하고 이로 인하여 자녀들은 낙심하게 되고, 반항하는 마음을 속으로 가질 수도 있고, 속이는 행동을 하도록 잘못 길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리스도 안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 본문 관찰

1)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가져야 하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2) 부모님들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3)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하여 하지 말아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무엇입니까?

4) 부모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합니까? 그 각각의 뜻은 무엇입니까?

4. 삶의 적용

1) 우리들은 가정의 웃어른들을 잘 공경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잘

못한 점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2)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욕하거나, 낙심케 하거나, 반항케 만들거나, 속이게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돌이켜 보면서 잘못된 점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 우리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목표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 말하여 봅시다.

4) 우리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토의하여 봅시다.

5. 결 론

자신의 보이는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제 5계명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주의 교양과 훈계를 통하여 올바르게 양육하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 1) 찬 송 다 같 이
- 2) 성경봉독 사 회 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다 같 이
- 5) 주 기 도 다 같 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
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